

해남군, 청년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청년카페·먹거리문화 캠퍼스 등 청년 오프라인 플랫폼 속속 들어서

해남군에 청년 오프라인 플랫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해남청년 오프라인 플랫폼 '청년카페' 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청년 먹거리문화 크리에이티브 조성사업'에 연달아 선정됐다. 청년카페는 국비 2억 6,500만원 등 사업비 12억 1,500만원을 투입해 청년 복합공간인 '청년 카페'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남읍 해리 천변 인근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할 예정으로 연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면적 310㎡, 지상 2층 규모의 청년카페는 1층에는 세미나, 공연, 카페 시설과 2층에는 교육실, 공유

오피스 등이 배치돼 다목적 청년 복합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청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군비를 추가 투입해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2배가량 확대했으며, 청년들의 소통 교류 공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6월 해남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과 함께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관리 운영 과약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를 견학하기도 했다. 청년 먹거리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 사업은 공유주방·공유오피스 공간을 제공, 청년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젊은 감각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창업 및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유휴공간인 해남읍 해리(구)종로 엔스쿨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예정으로 9월부터 예비창업자들을 모집하고, 10월부터 기초창업교육, 심화창업교육, 맞춤형 멘토링,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의 정보 교류, 자원 연계, 인적자원 교육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복합공간인 청년카페와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할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등 청년 플랫폼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해남군 청년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청년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청년들의 소통과 취·창업의 거점 공간이 될 청년 오프라인 플랫폼이 연달아 들어서게 돼 기대가 크다"며, "우리 지역 청년층의 능력개발과 성장을 지원할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 다기능 부잔교 설치 추진

12개 읍면 총 196개 설치 완도군은 선박의 접안과 승·하선 시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어획물의 양륙을 원활하게 하여 작업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12개 읍면 각 어촌계를 대상으로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는 작년 말까지 12개 읍면에 총 1%개소가 설치됐다. 이중 사용 기한이 오래되어 부

식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1~2억 원의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어획 물량 증가 등으로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의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강진군, 농기계종합보험 80% 지원으로 안전한 농작업 보장

가입 보험료 국비 50%·도비 9%·군비 21% 지원

강진군은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1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사고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 보험료는 총 80% (국비 50%, 도비9%, 군비21%)를 지원해주며 농가는 20%만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를 전액 지원한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

기 등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며, 가입신청은 연중가능하다.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칠량면에서 거주하는 최 모씨(36세)의 경우 트랙터를 농기계 종합보험에 121만 원으로 가입해 사고 후 보험금 1억5천326만 원을 수령하는 등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농가들에서 잘 알지 못해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이니 만큼 농업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많은 농가가 가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열대거세미나방’ 방제하세요”

유충시기에 등록약제 살포 시기 놓치면 10~30% 피해

장흥군은 일부지역 사료용 옥수수 재배단지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이 발견하고 방제를 늦출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열대거세미나방은 5월말부터 중국의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유충이 벼, 옥수수, 수수 등 80여종의 식물에 피해를 주는 광식성 돌발해충이다. 유충은 머리에 역Y자 모양과 9번째 마디에 마름모 반점을 가지며 옥수수의 중심부와 잎, 줄기, 열매를 가해하여 수확량을 10~30%까지 감소시킬 만큼 먹

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발견 시 클로란트라닐리프를 수화제, 인독사카브입상수화제 등으로 방제해야한다. 등록약제에 대한 정보는 농사로(nongsaro.go.kr),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발견된 바가 없지만 벼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으로 추정되는 의심 개체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발생 확인 시 해프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난 후 등록약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신속하게 방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군, 맞춤형 투어버스 3종 운영

8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 버스에 탑승...관광지 소개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진도 시티투어 버스 등 맞춤형 투어버스 3종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보배섬 진도군을 쉽게 알 수 있는 맞춤형 투어버스는 ▲도시권 관광객 유치에 위한 목포역을 기점으로 하는 '진도 시티투어' ▲솔비치 진도 방문객들을 위한 '솔비치 진도 투어버스' ▲섬·해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도 관광순환 버스'이다. 모두 당일 여행상품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광, 문화예술 체험, 역사유적지, 진도개 공연, 관광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알차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여행상품이다. 진도 시티투어는 목포역-목포해상케이블카-진도개테마파크-토

요민속공연(토요일 한정)-송가인 고향집 등을 코스로 토·일 1회 운영하고 운행요금은 7,000원이다. 솔비치 진도 투어버스는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윤림산방-진도타워-진도개테마파크-송가인 고향집 등을 코스로 매일 1회 운영하고 요금은 10,000원이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조도면 관광순환 버스는 창유항-하조도 등대-도리산 전망대 등을 코스로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수시 운영하고 요금은 5,000원이다. 특히 맞춤형 관광 투어버스 3종은 보배섬 진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광안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입담 좋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버스에 탑승 관광지 설명을 실시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함평천지농특산품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